

# 지역에 부는 '독서 르네상스'... 책향기 그윽한 가을

2013년 가을, 지역에 부는 독서 바람이 깊어가는 가을의 향기를 점점 짙게 한다.

광주시립도서관과 전남도립도서관을 비롯한 지역도서관이 9월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고전적인 스타일의 독서 운동에서 나아가, 책을 매개로 하는 문화 공연, 문화 체험에 초점을 둔다. 책 읽는 습관의 형성과 공동체문화 형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먼저,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4일(오전 11~오후 6시) 시청 문화광장에서 '제2회 도서관 문화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의 서재와 문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개막행사로 진행되는 '다함께 책 읽기'는 시민과 어린이, 강연대 광주시장이 헌권의 책을 선정해 한 페이지를 함께 읽는 행사다. 정약응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창비)의 특정 페이지를 합독함으로써 '책 읽는 광주'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번 축제는 크게 체험부스에서 펼쳐지는 체험활동, 참가자들이 함께 꾸미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모두 50개의 체험부스에서는 독서의 고유 본령인 책 읽기와 관련 행사 외에, 독서 골든벨, 독서 가방 만들기, 북아트 만들기, 퍼즐 맞추기, 다문화 음식문화 체험이 펼쳐진다. 특히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부스에서는 지역 출신 작가인 주홍, 고근호, 김병하, 오치근 씨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화공연도 풍성하다. 파랑새 극단이 동화인형극 '물의 요정'을 선사하고, 풍양중 '세라토닉'이 난타를, 문성중 사물놀이 팀의 공연, 상일여고 재즈댄스 팀이 댄스를 선보인다. 문의 062-613-

7735.

광주일곡도서관, 무등도서관, 산수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를 연다.

일곡도서관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를 위한 그림자극과 빛그림 동화 상영, 독서의 달 기념 포토존 운영, 책과 함께 하는 책문화 잔치, 책과 친해지는 법 등 책 문화 잔치를 펼친다. 27일 심미아 동화작가와 함께 하는 음악회, 어린이실 테마도서전시(~13일)는 독서 방법,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일깨운다.

무등도서관은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인문학 탐방, 독서왕 선발대회, 독자가족·독서 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2013 올해의 책('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으로 선정된 책이나 전남 출신 작가 등과 관련한 행사를 마련, 독자와 작가의 간극을 좁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행사는 28일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길을 찾아서'(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정유정 작가의 소설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탐험을 답사하는 행사다. 작가는 참여하지 않지만 소설 속 주인공이 걸었던 길(장성·

## 광주·전남 도서관 9월 맞아 다양한 행사 풍성

### '도서관 문화마당'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등

어린이실에서 어린이와 북스타트 회원을 찾아간다. 화요일 '책이랑 놀자'(10시 30~11시 30분), 수요일 '책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10시 30~11시 30분), 목요일 '유아가베'(10시 30~11시 30분), 금요일 '유아맛사지와 요가'(10시 30~11시 30분)를 실시한다.

전남도립도서관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0월까지 이색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의미가 각별하다.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는

함평·무안·신안)을 함께 걷는다.

14일 개최되는 '남도 가을 하늘 독서 캠프'(오후 2~6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무안 도립도서관에서 펼쳐지는 행사에는 시낭송, 독서법 강의, 모듬별 독서 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이천준 문학기행(10월 26일·11월 9일)과 정약응의 유배지 기행(10월 12일)도 관심을 끄는 행사다. '당신들의 천국'의 소재가 되었던 고희 소록도와 순천 박물관 관람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의 무대인 강진 일대를 탐방하는 기행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1-288-5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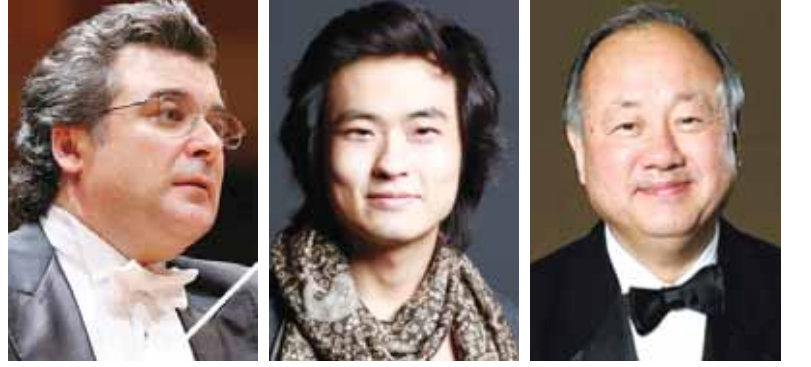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율성 축제 11~14일 문예회관·빛고을시민문화관

니콜라이 디아디오우라 지휘  
광주시향과 오프닝 무대

김다솔·김정훈 등 협연  
日 연주자 스페셜 게스트 참여



니콜라이 디아디오우라 김다솔 한동일

##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향연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김다솔, 비올리스트 오야마 헤이치로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가을밤 클래식 향연.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 축제'가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축제 첫날인 11일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니콜라이 디아디오우라(현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단 수석 지휘자)가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오프닝 무대를 선사한다. 연주곡은 나실린이 편곡한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 서곡 주제

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

이어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광주시향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Op.18'을 협연하고 지난달 말 광주 음악공부에서 1등을 차지한 테너 김정훈이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협연한다. 피날레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이다.

12일 오후 7시30분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한동일과 그의 음악 친구들이 함께하는 무대가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일본 요미우리오케스트라 및 오사카필하모닉에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오야마 헤이치로를 비롯, 마사카즈 다테이치(바이올린), 에이누 후미에(바이올린) 등 일

본 연주자 3명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국내외 콩쿠르 1위를 휩쓸고 독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민지(첼로)와 김도연(바이올린)도 함께 한다.

이들은 '베토벤 피아노 3중주 4번 Op.11 가센하우워', '브람스 비올라 소나타 1번 바단조, 1번 Op.120', '드 보르작 피아노와 현악을 위한 5중주곡 A장조 Op.81' 등을 들려준다.

축제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7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이탈리아 '일 콘체르토 텔레 오카리나' 앙상블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670-746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제2회 도서관문화마당'이 14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1회 도서관문화마당'장면. <광주 시립도서관 제공>



## 지역작가들의 눈부신 약진

지난 8일 막을 내린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13)에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아트광주13 조직위원회는 지난 4~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13 작품 판매 수는 200여점, 총 판매액은 12억5000원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판매 목표액은 15억원이었다.

작품 판매액은 지난 2011년 아트광주11(15억원 추정) 보다 줄어들고, 지난해 아트광주12(10억원 추정) 보다 늘었다.

올해 최고가로 거래된 작품은 '김리아 갤러리'가 출품한 이우환 '조음' 시리즈 중 '바람과 함께'(130x95cm)

서정민 작 '소리의 흔적' 1억8000만원 판매  
제희갤러리 2720만원 가장 많은 작품 거래

로 2억5000여만원에 판매 예약됐다. 조선대 미대 출신인 서정민 '소리의 흔적' II·III(각 291x220cm) 2점도 모두 1억8000여만원에 판매됐다.

특히 광주 출신으로 '제이원 갤러리'(대구)를 통해 참여한 이현정은 개막 첫날 8개 작품(5000여만원)을 모두 판매했고, 신수정(제희갤러리 관장)씨도 모두 2000여만원 상당의 작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갤러리 중 가장 많은 작품을 판매했던 갤러리는 모두 2720만원 상당의 작품을 판매했던 제희갤러리로

집계됐다. 해의 갤러리 중에서는 사진작가 이설재, 일본 나오 요코다 등과 함께 참여한 일본 '츠바키 갤러리'로 확인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해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며 "하지만 기업 후원 등 예산부족으로 미국 갤러리 등 국제적인 갤러리를 유치하는데 실패한 것과 홍보마케팅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